한국폴리텍대학 | 보도자료 |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2026. 11. 3.(화) 12:00 (2026. 11. 4.(수) 조간)

폴리텍대학, 정규수업으로 '한국인정기구 합격증'까지 챙긴다

- 국가 공인기관 1,340여 곳의 필수 인력 교육을 캠퍼스에서 이수
- 수업 한 번에 학점과 KOLAS 합격증까지…전국 캠퍼스 규모 확대 예정

한국폴리텍대학(이사장 이철수)은 지난해 교정·시험 공통 2개 과정에 이어 지난 9월 길이·전기 분야 '정밀측정 기술교육' 2개 과정을 한국인정기구(KOLAS)로부터 추가 인정받아, **교정·시험 분야 총 4개 KOLAS* 인정 교육과정**을 **정규 교과목으로 운영**한다고 밝혔다. 특히 **전기 분야는 국내 대학 중 최초 인정**이다.

* 한국인정기구(KOLAS):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

■ 10cm를 정확히 재는지 확인하는 '교정'… 그 신뢰를 국가가 보증

공장의 자가 10cm를 정확히 재는지, 저울이 1kg을 제대로 표시하는지 **기준 장비와 비교해 확인하는 일을 '교정'**이라 한다. 측정이 틀리면 제품 품질도 틀어지기 때문에, **측정과 시험을 맡는 기관은 믿을 만한지 국가의 평가**를 받는다. 이 평가를 맡은 곳이 **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운영하는 한국인정기구**(KOLAS)다.

KOLAS가 인정한 공인기관은 **한국산업기술시험원(KTL),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(KTC), 한국도로교통공단(KOROAD)** 등으로 총 **1,340여 곳(2026년 10월 기준)이다.** 공인기관이 발행한 성적서는 국제상호인정협정에 따라 해외에서도 그대로 인정돼, **수출 기업에는 '품질 여권'**과 같다.

■ 수업 한 번에 학점과 합격증까지…공인기관 필수 인력 교육 이수

공인기관에서 **품질·기술책임자·실무자 등으로 일하려면 KOLAS가 인정한**

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. 그동안 별도 교육기관에 수십만 원의 교육비를 내고 시간을 따로 들여야 했지만 이제 한국폴리텍대학 학생은 **추가 비용과 시간 부담 없이 정규수업만**으로 **학점과 합격증**을 함께 갖출 수 있다.

첫 정규수업은 **지난 10월부터 성남·화성·부산·진주·반도체융합 5개 캠퍼스**(9개 학과, 215명 대상)에서 시작돼 현재 운영 중이며, **KOLAS 교정 선임 평가사, 대한민국 명장 등 현직 평가사들이 강의를 맡고 있다.** 이어 **내년 1학기**에는 **15개 학과 510명 규모로 확대**한다.

한국폴리텍대학 관계자는 **"국가가 인정한 교육을 학교에서 마치고 합격증까지 쥔 채 현장으로 나가는 만큼 학생들의 취업에 큰 힘**이 될 것"이라며 "산업현장이 요구하는 공신력 있는 교육을 정규 과정에 계속 연결해 '배우면 바로 쓰이는 교육'을 실현하겠다"라고 말했다.

붙임. 관련 이미지

담당 부서	경영관리실 홍보부	책임자	부 장	최진경 (032-650-6740)
		담당자	대 리	김재민 (032-650-6742)
담당 부서	직업교육연구원 연구개발처	책임자	처 장	위영은 (02-749-5011)
		담당자	교 수	김선삼 (02-749-5018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대체불가 대한민국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붙임 **관련 이미지**

제 함26-한국폴리텍-000호

합 격 증

소　　속 : 한국폴리텍대학
성　　명 : 강ㅇㅇ
생년월일 : 2000.00.00
교육과정 : KS Q ISO/IEC 17025 운영실무 교육
교육분야 : 교정, 시험
교육기간 : 2026년 05월 19일 ~ 2026년 05월 22일 (22.00h)

귀하는 KOLAS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요령 제20조 1항에 의하여 위 교육과정의 평가시험에 합격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.

2026년 6월 12일

한국폴리텍대학 직업교육연구원장

▲ 한국폴리텍대학에서 '26년 5월 시범 운영한 KOLAS 인정 교육과정 합격증